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SUMMER

Medical Essay

손 저림,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까?

위식도역류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다양한 식도 질환

부인과 질환의 치료 : 현재와 미래전망

모든 과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과는 시작입니다



Care & Love

??? ??E???



작가 송호준 제목 BLUE1 소속 갤러리H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SUMMER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3년 6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T.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 04 **선교의 동력**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6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공의 비결** 구원 목사·김해 동서남북 교회
- 08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이정현 교수·소아청소년과

Medical Essay

- 10 **손 저림,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까?** 전병준 교수·신경과
- 12 **위식도역류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다양한 식도 질환** 정경원 교수·소화기내과
- 14 **부인과 질환의 치료 : 현재와 미래전망** 김은택 교수·산부인과
- 17 **모든 과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과는 시작입니다** 신호식 교수·신장내과

Culture & Life

- 19 **올 여름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 24 **향기로운 산행 윤산, 그리고...** 노경만 산·여행작가
- 28 **햇꽃** 김희자·수필가
- 32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 31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 36 **포커스뷰**

Donation

- 44 **진료시간표**
- 48 **KOSin 사랑in**

선교의 동력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복음병원의 해외의료봉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의 영향 아래, 아무데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복음병원은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었고,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국한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향적인 병원인 것을 공표해 왔습니다.

복음병원 의료선교훈련원이 재개되었고,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태국과 남아공으로 팀을 구성하여 직접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복음병원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용된 일꾼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보너스가 주어지면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아들은 아버지의 일에 용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꾼의 수고한 대가는 임금입니다. 주어지는 임금으로 자신의 역량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주어지는 금액을 따라 그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전무할 지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여기며,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친밀함 보다는 경외심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늘 조심성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유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 열정, 방식으로는 생명나무 실과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인간은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으심을 통해 인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인간을 찾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통을 자르시고, 버려진 인간을 자신에게 접붙이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범죄의 유혹이 따르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고 하셨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신과 인간이 연합한 신인을 볼 수 있지만, 유대사상에서 이러한 사고는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 그리고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6:26)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6-27).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구되는 관계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존재자체가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아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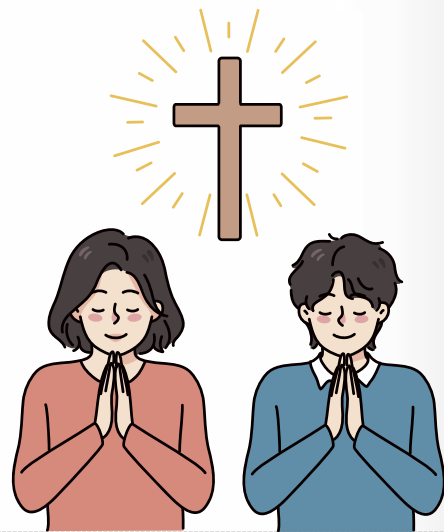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4-7). 아들에게는 얼마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고 당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고 했습니다. 최종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생을 찾으셨듯이 우리들도 아버지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고, 사역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복음병원이 됩시다. ✨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공의 비결

 구원 목사 · 김해 동서남북교회 부목사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아마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팀켈러는 현대인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¹⁾ 그렇기에 성공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성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여러 번 성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성공을 표현합니다. 이 '형통'이라 번역된 단어의 어근을 바탕으로 보면 성공은 "주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공의 비밀(비결)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공의 비밀을 받은 성경 인물을 꼽

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수 1:7-8).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성읍의 31명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31승을 거둔 셈입니다. 놀라운 전적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법을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비법은 신개발 무기도 아니고, 군사력의 증강도 아니고, 새로운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 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수 1:7-8)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양들의 행동을 예로 든 것입니다. 양들은 근시안이라 자신의 앞에 있는 양만 보면서 따라가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길은 지금처럼 잘 닦여진 것이 아니어서 당시 목자들이 양을 이끌 때 결길로 갔다

가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정도(正道)대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 결길로 가면 잘못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성공하는 핵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이 되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 상식으로 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아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추측하기를 성 주변에 도랑이 있고 외부 웅벽이 있고 그 위에 하층 성벽이 있고 성곽이 펼쳐지고 상층 성벽이 높게 쌓인, 그야말로 전투력과 방어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 주위를 뱅뱅 돌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부상자, 사상자가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32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31번의 승리를 거두고 한 번의 쓰디쓴 실패를 맞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아이 성에서 말이죠. 수적으로도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부하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아이 성 전쟁에서 패배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적들 앞에서 도망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뼈 아픈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에게 주십니다.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렇다면 전쟁은 실패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적은 32전 31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성공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수아 6:27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수 6:27)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형통'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께서 나와 함께 하며 인생의 항해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에 대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 23:17-18) 내 눈에 죄인도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으나 그런 것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용사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빠르지만 짧고 허무한 성공을 좇기보다, 느려 보여도 영원하고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좇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성공하는 '오늘'을 살기로 합시다! ✨

1) 팀 켈러, 「거짓 신들의 세상」(베가북스, 2009), 115.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 ‘장기려 회고록’이 다시 출판되게 된 사연

 이정현 소아청소년과



올해 3월 초 어느 날,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온 모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연구실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연로하신 여사님 한 분(○여사님)과 따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길을 잃으신 듯 보여서 “어디를 찾으세요?”하고 여쭙었더니 따님이 어머니를 소개하며 “서울에 사시는데 고향은 북한이고 최근에 복음병원이 장기려 박사님(장 박사님)이 세우신 병원이라고 알게 돼서 서울에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장 박사님 사시던 곳 보고 싶어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옥탑방을 보고 싶으신 거군요. 1층에 가 계시겠어요? 곧 따라갈게요.”하고 총무과에 들어서 옥탑방 참관 허락을 받았고 안내데스크로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이라는 말에 자세히 물을 것도 없이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바빠 움직였습니다. 1층에 갔더니, 따님께서는 휠체어에 어머니를 앉히고 대기 중이셨어요. ○여사님 얼굴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안내데스크로 갔는데, 총무과 연락을 받고 이미 열려두었다는 감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로한 어르신이 옥탑방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실까 염려가 됐는데, 놀랍게도 성큼성큼 잘 올라가셨습니다. 장 박사님이 계시던 옥탑방을 구경시켜 드리니, 정말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방명록을 쓰시도록 권하니, ○여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쓸까요?” 물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니, 당황스럽게도 그대로 쓰시고, 비고란에 ‘1·4후퇴 피난민’이라고 쓰셨습니다.

따님은 저에게 어머니와 장 박사님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존경하고 그리울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게실 때 위가 아파서 장 박사님을 찾아갔는데, 진찰하시더니, 이 병은 수술할 병이 아니고 ‘위하수증’이라고 먹는 걸 조금 줄이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안 했고, 그래서 6.25 전쟁 때 온 가족이 피난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시며, 그때 수술했으면 못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평생 그 은혜를 못 잊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은 감격에 젖어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기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마치 고향에 오신 것 같으신가 봐요.”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실향민의 마음이 느껴져서 몽클했습니다. 옥탑방을 내려와서 중앙수술실 밖 복도의 ‘역사 사진 갤러리’로 안내해 드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장 박사님 관련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들으러 오시겠다며 제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셨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2011년, 복음병원 개원 60주년이던 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의료윤리 강의의 시작으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강의를 과제로 받아서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제외한 매년 우리 고신의대 예과 1학년에게 그 강의를 업데이트하여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도 설마 했는데 강의하는 날 정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오셨는데, 복음병원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오셨다고 하셔서 그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장 박사님 강의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며 따뜻한 손을 꼭 잡아주셔서 정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에 중앙로비의 장 박사님 관련 벽면 전시물 앞에서 ○여사님의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여사님은 또 놀러 오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음번에 ○여사님을 뵈면, 우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개원 70주년 기념 ‘장기려 회고록’ 재판본을 선물로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5월 초 불시에 ○여사님은 병원에 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준비해 두었던 책을 들고 뵈러 갔습니다. 오늘은 바다 구경하러 왔다고 하시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하시며, 장기려 박사님이 세우신 병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들을 인사가 아니라서 몸 둘 바를 몰라 하는데,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 주시며, 장기려 박사님을 전하는 데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겉면에는 ‘장기려 박사님께 500만원 - 무명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주저주저하는데, 웃으시며 “선생님 쓰라고 드리는 거 아녜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편안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재출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은 “그러면 나는 너무 고맙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장기려 회고록’은 다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애써주신 병원 홍보실 관계자 분들과 현대출판 김병대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려 박사님 생전에 그분의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겸손한 삶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랐던 분들의 소망과 또 개원 70주년에 그 뜻이 또 이어지기를 바랐던 모든 분의 소망이 ○여사님의 장기려 박사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더 많은 분께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2023년 개원 72주년을 맞으면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손 저림,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까?

 전병준 교수 · 신경과



손 저림은 연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너무 흔한 증상이라 유난 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발의 저림증상은 말초신경질환, 중추신경질환, 혈관질환, 류마티스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감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손 저림증상의 다양한 원인

말초신경병은 주로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 얼굴 및 신체의 다른 부위의 저린감각, 위약감, 온도감각의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말초신경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으며, 이는 엄지와 검지 및 손바닥의 저림증상과 같은 부위의 위약감이 주로 발생하고,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병도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약지와 검지그리고 그 아래 손바닥부위의 저림증상 및 위약감이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질환은 당뇨/갑상선병/류마티스질환 등의 전신질환이 있을 때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당뇨, 약물에 의한 신경병, 알코올성 신경병,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다발신경병이 있으며 드문 원인으로 만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 등이 있다. 다발신경병은 주로 양손, 양발에 장갑을 낀 것 같은 모양의 감각저하 및 저린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초신경병은 주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진단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말초신경 이외에도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는 신경뿌리병증에 의해서 손발저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발 이외에도 위팔, 어깨, 종아리 및 허벅지의 저림증상과 목통증 및 허리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신경뿌리병증은 근전도검사 및 척추 CT, MRI를 통해 진단한다.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손발저림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손발저림은 주로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손발저림만 동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편측 팔다리의 마비, 발음의 이상, 시력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드물게 뇌의 시상이나 연수의 작은 병변이 있을 때는 손발저림이나 감각저하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주로 한쪽 팔다리 전체의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경색 및 뇌출혈은 뇌 CT, MRI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말초혈관질환에 의한 손발저림

말초혈관질환에 의한 손발저림은 주로 팔과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협착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동맥질환, 정맥질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동맥의 협착에 의한 증상일 경우 보행장애를 동반한 저림증상과 손발의 온도가 정상보다 떨어지며 시린증상 및 통증이 주로 발생하고, 손발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맥에 의한 저림증상은 주로 하지정맥류에 의해 발생하며 오래 걸을시 하지의 통증과 저림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혈관질환은 신경병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하지 혈관 초음파 또는 CT로 진단할 수 있다.

손발저림증상에는 빠른 대처가 필수

위와 같이 저림증상은 다양한 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질환에 따른 치료도 모두 다르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중 치료가 가능한 종류의 경우 일찍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추신경계 질환 또한 빠른 진단과 예방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때문에 증상이 수 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및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 등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병준 교수 | 신경과
전문진료분야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위식도역류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다양한 식도 질환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흔히 일반인들이 음식물이 입으로 역류하거나 가슴이 화끈 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면 우리는 대부분 위식도역류질환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최근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확인되는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은 15%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의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위식도역류질환에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는 위산 억제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흔하지 않지만 생각해봐야하는 식도질환들이 있다.

식도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

먼저 삼킴곤란 등의 증상이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과 함께 동반된다면 반드시 식도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이라는 대표적인 식도 기능 질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식도이완불능증이라는 질환은 위와 식도의 연결부위인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곳에 신경절 손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삼킴의 과정에서 위식도접합부가 잘 열리지 않는 질환이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입에서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 가야 하지만 식도 안에 음식물이 갇혀 있게 되어 일차적으로 삼킴곤란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어서 음식물이 입으로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게 된다. 때로는 식도에 동시 수축 반응이 일어나면서 흉부 통증까지 동반되어 위식도역류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식도이완불능증은 흔하지 않아 제대로 진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만 계속하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삼킴곤란 증상이 있거나 음식물 역류와 흉부 통증이 있다면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의 확장과 음식물이 식도 안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식도조영술이나 고해상도 식도 내압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식도이완불능증과 같은 식도 기능질환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식도이완불능증의 치료로 풍선 확장술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입술이나 때로는 외과적으로 복

강경하 근절개술을 시행하였지만, 최근에는 경구내시경 식도 근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Myotomy)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 안정성, 단기 및 장기 치료 효과, 낮은 합병증의 소견을 보여서 점점 표준 일차 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식도 기질적 원인의 질환

두 번째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식도 기질적 원인의 질환들이다. 특히 삼킴곤란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질적 질환으로는 식도암, 식도협착, 호산구성 식도염 등이 있다. 이러한 식도질환 등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진단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식도암과 같은 악성 질환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내시경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완치적 치료 방법을 놓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속된 역류성 식도염, 병초산/세척제와 같은 부식제 삼킴, 식도절제술 등으로 인한 식도 협착 또한 증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삼킴곤란 등이 발생할 때에는 이러한 식도 협착을 감별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식도협착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등의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나 음식 알레르기 질환과 종종 동반되어 발생하는 호산구성 식도염도 고려해야 한다. 호산구성 식도염은 식도점막에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산구가 침착되면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러한 염증 반응 결과 삼킴 곤란이나 구토, 역류증상,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호산구성 식도염은 반지 모양 주름과 종주형 골 모양의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시 내시경 의사가 의심하고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위산 억제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위식도역류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식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여러 질환들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의사가 먼저 의심하고 적절한 시기에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그리고 식도 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슴 쓰림과 역류 등의 위식도역류질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한 번쯤 다른 식도 질환의 가능성은 없을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만나 다시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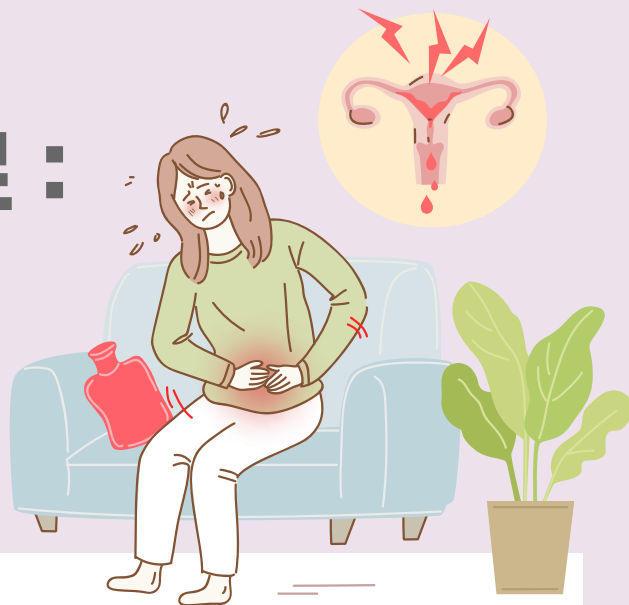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시술	외래	외래	시술	시술
오후	시술	연구	시술	연구	외래

부인과 질환의 치료 : 현재와 미래전망

 김은택 교수 · 산부인과



부인과 수술은 분만과 관련된 여성의 생식기관을 다루는 만큼 가임력 보존 및 조기폐경을 막기 위하여 범위를 한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수술해야 한다. 또한 좁은 골반 내에서 수술 도구를 움직여야 하기에 정밀함이 요구된다. 골반 내 구조물에는 많은 미세혈관과 신경이 있으며, 신체 내 주요 장기인 장·요관·방광이 밀집해 있어 수술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 당연히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사이 복강경수술과 유사하지만, 집도의가 로봇팔을 이용하는 '미체침습 로봇수술'이 도입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수술시야가 넓어져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수술 부위의 절개와 지혈이 동시에 가능하여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로봇수술의 장점이다.

자궁근종 및 부인암 수술에 유용한 로봇 수술

부인과 양성 질환에서 로봇 수술이 가장 유용한 경우는 자궁근종절제술이다. 이 수술은 자궁을 적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 근종 위치나 크기에 따라 혹 제거 후 자궁을 봉합하는 과정이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종종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로봇 수술은 사람 손보다 더 많은 회전운동이 가능하고 손 떨림도 없는 로봇 손을 통한 정교한 움직임을 이용하여 정상 자궁 조직을 다치지 않고 근종만을 절제한 후 자궁의 여러 층을 단단하고 정교하게 꿰는 시간 내에 봉합할 수 있다. 복강경과 비교한 연구에서도 로봇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출혈량의 감소, 짧은 입원 기간, 낮은 합병증을 보인다고 밝혀졌다.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초기 난소암 등의 부인암에서는 자궁 및 종양적출과 동시에 골반임파선박리술이 요구되며 종류에 따라서는 대동맥주위 임파선박리술이 필요하다. 로봇수술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15배까지 확대되는 특수카메라가 활용되고, 복강경의 2차원 영상이 아닌 3차원의 입체 시각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정적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인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로봇수술은 골반과 대동맥 주변 림프절 절제술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에는 수술로 인해 많은 부위의 림프절이 제거되어 후유증으로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로봇수술을 통해 관문 림프절 제거술을 시행함으로써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문 림프절 제거술을 위해 최신 형광림프절 관찰 시스템이 사용된다. 의료용 형광물질을 수술 부위에 주입하여 암의 통로가 되는 관문 림프절을 확인하고, 로봇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여 혈관과 혈류, 미세 조직까지 관찰함으로써 림프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로봇수술은 앞서 언급한 질환 외에도 산부인과 영역에서 기존의 복강경으로는 어려웠던 큰 자궁, 심한 골반 내 유착, 진행성 자궁내막증 등의 수술도 쉽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정밀성을 바탕으로 부인과 질환을 위한 로봇수술은 현재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부인암 환자의 경우 향후 향상된 삶의 질, 낮은 재발율, 그리고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최선의 수술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난소암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및 상담

난소암은 배란을 위한 난자 형성과 주기적인 호르몬 분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생식기관인 난소에 생기는 암이다. 발생 조직에 따라 구분되는데, 보통 난소암 환자를 보면 상피성 난소암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난소암은 50대 이후 환자가 전체의 68.6%를 차지해 전체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폐경 이후에 발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연평균 2.1%로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국내 난소암 신규 발생자 수는 약 3000명이다. 반면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64.5%(2019년 기준)로 유방암 93.6%, 자궁내막암 89%, 자궁경부암 80.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난소암 환자의 70%는 진행성 난소암(3기, 4기)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병기가 3기 이상 진행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와 2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진단이 늦은 이유는 난소의 경우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특성 때문이다. 또한 진행성 난소암은 주로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커지는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복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난소암으로 판단이 어렵다.

난소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번도 출산한 적이 없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출산 여성 대비 한 차례 출산한 여성은 10%, 세 번의 출산을 겪은 여성은 50%나 난소암 위험이 줄어든다.

다음으로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종양 억제에 관여하는 BRCA1/2의 변이가 있거나 린치증후군과 같이 자궁암, 대장암 등 과거 병력이 있으면서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난소암 환자의 50% 정도는 DNA 복구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HRD)가 관찰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RCA1/2 변이로 난소암의 15~20% 정도에서 나타난다.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통해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으므로 난소암 및 유방암 환자의 가족에 대한 유전상담 또한 권고되고 있다.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은 난소암의 일차치료법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데 비하여 진행성 난소암의 치료 성과는 오랜 기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유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일차치료 종결 후 발생하는 약 80%의 재발을 때문이다. 최근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재발억제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유지요법’의 개념이 등장했다. 유지요법은 VEGF 억제제, PARP 억제제 등을 이용하여 백금 화학요법 후 남아있는 암세포들의 재성장을 억제하여 재발을 막는 치료 방법이다.

BRCA1/2 유전자 검사는 난소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유전성 암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PARP 억제제의 경우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70%나 낮출 수 있다. 또한 유전성 난소암-유방암 가계에서 가족 검사를 통해 암에 이환되지 않은 보인자를 찾아 암 발생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예방적 수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암 발병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난소암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 및 유전 상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난소암 위험군에 해당하거나 BRCA 유전자 변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인 암전문의를 통해 유전상담과 교육 및 정기검진과 예방적 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은택 교수 | 산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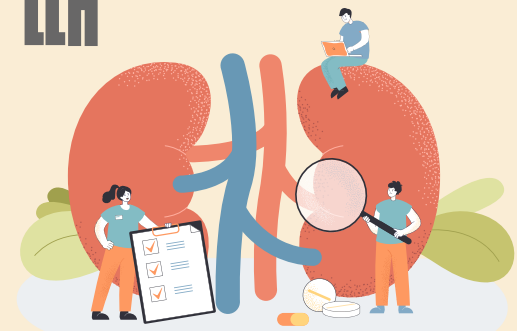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부인질환, 부인 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로봇수술, 내시경수술 (부인암 분과전문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모든 과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과는 시작입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다른 과에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과에서 모두 받습니다. 모과에서도 안 되는 환자가 있을 때 우리 과에 연락이 옵니다. 처음 수련의 할 때는 연락이 많이 와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데에 감사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과 중에서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전신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은 내과라고 한다.

엄마같은 과, 신장내과

“내과 중에도 콩팥내과가 환자들에게 링거를 주고 콩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과인데, 엄마 같은 과로서 다 품을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고신대병원 의사들은 추석, 설 연휴 등에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많이 나간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응급 체계로 들어가야 한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가거나 연휴 기간에 응급 체계로 들어가더라도 병원 진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자들이 진료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렇기에 이때까지 진료 공백이 생긴 적은 없다고 한다.

콩팥 이식 환자를 케어하는 일

“환자들이 ‘신장내과’ 발음이 어려워 ‘심장’이라고 말할 때

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콩팥내과’입니다. 말기신부전 또는 말기신부전증(콩팥 기능 상실), 급성신부전증, 요로감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집중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관련 수술은 외과와 비뇨의학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말기신부전이 되면 콩팥이식이 필요하다. 문제는 아무리가까운 사람,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거부반응’은 이식된 장기가 이식받은 환자의 몸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면역체계에 공격 받은 현상을 말한다. 이식된 장기는 내 것이 아니기에 밀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면역억제제’이다.

“장기이식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식하는 장기가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할 검사들을 신장내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식을 통해 내 몸에 들어온 콩팥이 내 것이 되도록 안착하기까지 소변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등 변동이 상당히 심해진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신대병원 신장내과는 수술하는 외과나 비뇨의학과 등이 잘 협력함에 따라 콩팥 이식환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식 후에도 계속해서 케어하고 있다.

“콩팥 이식 같은 경우 ‘면역억제제’를 쓰고 나면 초기 한 달 간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 모든 감염에 노출됩니다. 콩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면역 세포로 놀려야 합니다. 세균이 힘이 세면 콩팥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을 세게 씹니다. 교수님들의 기술이 좋아서 수술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감염만 잘 넘어서면 콩팥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신장내과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초기부터 수술을 들어가기 전, 후까지 잘 준비해서 이식환자들을 돌본다. 신 교수는 수술을 앞두고 긴장하는 환자와 함께하면서 그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한 시간 전 병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환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제가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교수들이 수술을 잘 집고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수술을 받는 환자 분들은 긴장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 환자와 수술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면 환자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때 제일 보람칩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거절한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을 받은 후 몸이 좋아져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의사들이 하는 일이 진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진료, 연구, 학생·전공의수련의 교육, 보직(행정)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일한다. 신 교수는 여기에 ‘진도’를 추가했다.

중환자실에 신장내과 중환자들의 수는 꽤 많다. 급성심부

전은 콩팥 기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등’의 중증환자는 대부분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지막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들이 중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중환자실 면회 자체가 안 돼 중환자들의 마지막 임종을 의사들이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임종하는 순간에 곁을 지키며 기도해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신장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는 일

신 교수는 작년 11월 19일 부산시의사회 집행부와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시의사회 제41회 의학대상 학술상’을 받았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신의대에서 석·박사를 마친 신 교수는 하버드 의대 이식연구센터 교환 교수를 거쳐 고신의대 대학원 의학과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고신대복음병원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교수는 장기이식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1년간 신장이식 관련 논문 4편을 발표하는 등 지역 의료계에서 다양한 학술 활동과 신장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전문진료분야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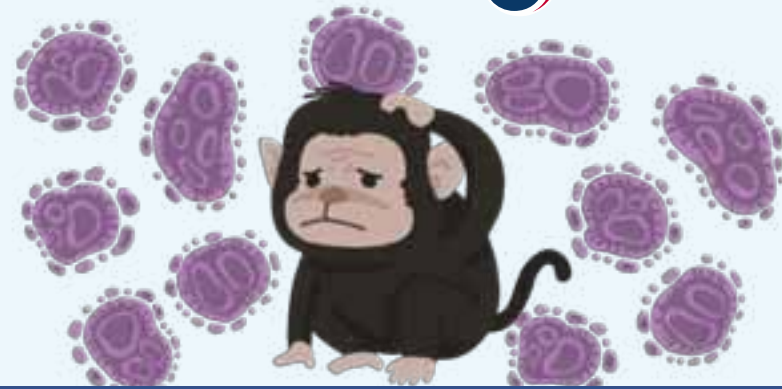
올 여름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 알아보기

엠폭스(원숭이 두창)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엠폭스 (원숭이두창)



엠폭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더 경미함

감염경로

- ①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
- ②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호흡기 분비물에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나, 비말전파는 호흡기감염병(코로나19 등)에 비해 가능성이 낮다.
- ③ 일부 원숭이두창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증상



일반적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을 시작으로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나며,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진단방법

진단검사기관	진단검사방법	검사소요시간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유전자 검출검사법	검체가 검사실에 접수된 후 약 6시간 소요

※ 엠폭스는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혹은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할 경우,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예방법

엠폭스(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을 피함
-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식기, 컵, 침구, 수건, 의복 등)과의 접촉을 피함
- ③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
*특히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만지기 전, 화장실을 사용한 후 손세정 권장

감염 시 치료법

엠폭스(원숭이두창) 진단검사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진은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를 투여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는 환자에게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담당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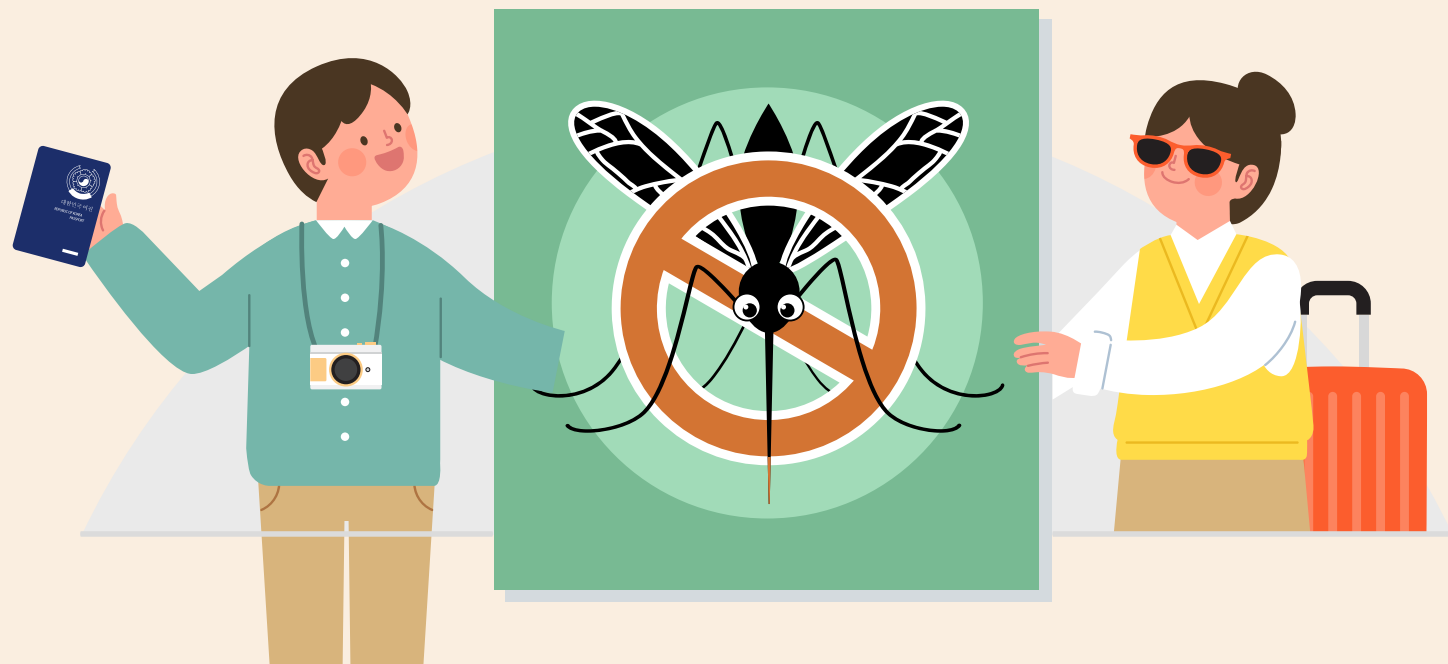
귀국 후 주의사항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미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콜롬비아 등의 다수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할 경우, 손씻기 ·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외 발생현황은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국내 자체 발생이 아닌,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
*말라리아는 국내·외 모두 발생



감염경로

주로 환자를 흡혈한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어 전파되며, 사람간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드물게 혈액 전파(수혈, 장기이식 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성접촉 감염이 가능하다.

증상

감염병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주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결막염 등이 나타나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예방법

- 여행 국가의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접종을 하거나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행 전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상비약을 챙긴다.
- **여행 시 유의사항**
 - ① 여행 중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사용
 - ② 풀숲이나 산속 등 모기가 많은 곳은 피하기
 - ③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 ④ 진한 향의 화장품 및 향수는 사용하지 않기
 - ⑤ 땀을 흘린 경우 샤워 권장, 땀이 묻은 옷은 세탁하기



감염 시 대처법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하기 때문에,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귀국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 최소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 입국 후 4주간은 헌혈 보류기간 (*방문 국가에 따라 헌혈금지 기간이 다르므로 헌혈하기 전 해당 혈액원에 문의하기)

향기로운 산행 윤산, 그리고...

 노경만 산·여행작가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노포 방향으로 가는 중 동래역을 지나다보면 높다란 아파트 숲 사이로 나지막이 보이는 산이 있다. 윤산(輪山)이다.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민망할 만큼 그 풍채가 왜소하고 기세 또한 미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예로부터 동래부의 진산(鎭山)으로 기록된 유서 깊은 산이다.

윤산(해발 318m)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의 동쪽과 서동의 서북쪽에 걸쳐있는 구릉성의 산지로, 동래 쪽에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둥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때는 구월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광복전 후 군작전지도상의 오기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산 주변에는 구월공원 구월산약수터 등 그 이름의 여운이 곳곳에 남아있다. 2002년 7월 지역주민들의 복원노력으로 다시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한다.

진산(鎭山)이란, 원래 도읍이나 성지 등의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중요한 산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산은 그 존재감이 미미하고 산객들 사이에 유명세도

떨한 편이다. 아마도 건너편의 금정산과 비교되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건물들의 높이에 가려진 탓이 클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더 좋은 산일지도 모른다. 도심과 아주 가까우면서도 그 키가 높지 않고 생김새도 둥글둥글하여 누구에게나 그 품을 편안하게 내어주는 산이 바로 윤산이다.

향기로운 산행

산행은 도시철도 부산대역에서 시작된다. 4번 출구를 빠져나와 삼한골든뷰와 대우아파트 사이의 대로를 따라 부곡사거리를 직선으로 건너 오르다보면 부곡암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나온다. 여기서 좌측으로 꺾어 골목을 지나 사대부고와 부곡중학교 셋길 오르막을 다 오르면 윤산로 건너편 부곡암에 다다른다. 본격적인 산행의 들머리다. 들머리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길을 잡아 숲속으로 접어든다.

울창한 숲속의 길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서두르지않



는다면 시원한 산행을 만끽할 수 있다. 가파르지 않은 길을 따라 느긋하게 걷다가 평상이 놓인 편백나무 숲속에 잠시 앉아 쉬기도 하고, 갈증이 날 때쯤이면 기다렸다는 듯 마중 나온 샘을 만나서, 서동방향에서 올라온 갈림길 <만남의 숲>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산책처럼 걸을 수 있다. 마냥 숲이 좋고 길이 좋아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향기로운 산행이다. 옷깃에 나뭇잎이 스칠 때마다 피어오르는 상큼한 향기가 울창한 숲의 그늘보다 더 시원하게 산행을 독려한다. 길옆으로 즐비하게 들어선 비목나무의 향이다. <만남의 숲> 갈림길에서부터는 약간의 오르막길이 시작되다가 전망바위에 도착할 때쯤부터는 제법 가파른 길이 정상까지 이어진다. 전망바위에 도착하면 조망이 처음으로 트이는데 동래구의 아파트 단지와 멀리 엄광산과 승학산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그리고 조금 더 오름길을 걸으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한다. 그때까지도 비목나무의 상큼한 향기는 결코 지치지 않고 같이 걸어준다.

햇살 가득한 천국

정상에 도착하면 산 아래에서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탄과 놀람이 함께 터져 나올만한 풍경이다.

“숲의 터널을 벗어나자 마침내 햇살 가득한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평평한 풀밭 위에 정자가 한 채 서 있고, 널찍이 깔린 나무마루 저편으로 탁 트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윤산해맞이 전망대> 경관안내판에는 회동호부터 달음산-아홉산-장산-센텀시티-광안대교-황령산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가 사진으로 그려져 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바다 저 멀리까지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다. 어느 여명의 시간이라면 장산 능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최고의 해맞이가 기대된다.

문득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이 떠오른다. 산행시작 즈음 부곡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우연히 보게 된 건물벽면의 현수막에 적혀 있던 문구다. 윤산 정상에 오



르고 나서 느낀 윤산의 진정한 매력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런 지나친 역적으로 도리어 윤산의 매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당찮은 상념이 깊어질수록 머뭇이 길어지는 윤산 정상에서의 시간…….

그런저런 생각으로 한참동안 뉘를 놓고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 <숲속운동공원>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내려가는 길 역시 <휴식의 숲>까지 경사가 거의 없고 그늘이 잘 드리워진 편안한 산책로이다. <휴식의 숲>에는 정겨운 나무 벤치가 여럿 놓여 있어서 이름 그대로 쉬었다 가기에 그만이다. 그리고 잠시 후 긴 나무계단을 내려가면 제법 널찍한 임도와 만나 <숲속운동공원>에 도착한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한다.

원점회귀로 산행을 마칠 양이면 부곡암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르면 된다. 다시 임도에 도착할 때까지 돌로 된 계단길이다. 중간쯤 <구월산약수터>에 들렀다가, 그리 오래 걷지 않아도 넓고 평평한 임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늘이

힘뻑 드리워진 내리막길을 흥얼흥얼 걷다보면 어느새 아까 산행을 시작했던 초입의 갈림길에 다다르게 된다. 휴식시간이 길지 않고 원점회귀라면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윤산 산행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지도를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으나 이정표만 놓치지 않고 잘 따르면 길을 잃거나 하는 일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숲속운동공원>에서 호수 방향으로 산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오륜동>이라 적힌 이정표를 따르면 된다. 윤산터널과 오륜터널 위를 지나 <회동수원지둘레길>을 만나고, 수변을 따라 느긋하게 걸은 후 <망피산 황토숲길>을 맨발로 걷는 모미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다. 그때쯤이면 윤산의 숲향기에 취하고 호수의 일렁거림과 촉촉한 물내음에 젖어 정신이 몽롱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산행을 마치면 오륜본동마을에서 마을버스 <금정구5번>을 타고 장전역으로 올 수 있다.🚌

헛꽃

 김희자 수필가

달구어진 유월의 태양은 인두처럼 뜨겁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따가운 별을 피해 산으로 든다. 울긋불긋한 모자까지 쓴 모습들이 화려하다. 키 큰 소나무들이 드리운 그늘과 짙어진 숲이 만들어낸 신선함은 아침부터 시작된 무더위를 누르고 있다. 노송의 길이 이어진다.

숲 중에서도 특히 소나무의 향기는 정신을 살찌게 하는 묘약 같다. 출가자의 특권 같은 산사 생활. 자연의 품에 묻혀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늘 동경하며 산으로 들지 않는가.

앞서가는 사람들을 저만치 보내고 쉬엄쉬엄 걷는다. 인기척이 멀어져간 산길 위에 적막이 흐른다. 숲에 들어서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오감이 생생해지고 생각은 깊어져 내 안에 머무는 고요를 볼 수 있다.

이럴 수가! 녹음이 하늘까지 치는 유월도 끝자락이다. 어영부영하다 보니 벌써 한 해의 반이 뭉텅 베어져 나갔다. 그동안 내가 무얼 하고 살았지? 문득 돌아본 하루하루는 텅 비어있다.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아 억울하다. 지난겨울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바닥을 치고 있다며 자각하고 살았다. 부질없는 생각에 얽매어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녹음이 짙어지며 꽃 보기가 힘든 계절이다. 하지만 길가 언덕배기에 소담하게 핀 꽃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수국의 꽃이다. 하늘 닮은 남색 꽃이 발길을 붙든다. 남색 꽃인가 했더니 꽃 끝에 하얀 꽃까지 피우고 있다. 꽃이 작아 받침 위에 또 다른 꽃을 피워 유혹하고 있다. 꽃 위에 꽃대를 밀어 올려 숲의 적막을 깨고 있다. 화려한 꽃이 햇볕도, 바람도 아닌 허공에 몸을 벌리고 있다. 제 존재를 수정해 줄 나비와 벌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날아든 것인가? 카메라를 꺼내니 꽃잎 위에 벌이 앉아 있다. 꿀벌 한 마리가 꽃을 빨고 있다. 숨을 죽이며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다. 가벼운 벌의 날갯짓이 숲의 정적을 깨고 산수국은 미소를 짓는다. 꿀벌은 꽃잎의 이곳저곳을 조심스레 날며 오직 꿀만 따고 있다.

화려하게 피어 벌을 유혹하는 이 꽃은 헛꽃이다. 눈부시게 하얀 꽃은 꽃받침이 변해서 꽃잎처럼 보인다. 꽃이 아닌 것을 꽃잎처럼 위장해서 허세를 부린다. 헛꽃은 씨를 만드는 진짜 꽃이 아니라 바람잡이 꽃이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진짜 꽃보다 더 화려함을 과시한다. 산수국의 본디 꽃은 아주 작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헛꽃을 피워놓고 수정을 기다리고 있다. 헛꽃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가난 없이, 고통 없이, 기다림 없이 피는 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가난하고 가난하여 내 존재마저 잃고 사는 요즘. 허기를 달래며 침묵하고 살아도 기다림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

가뭄으로 줄어든 저수지의 물 높이를 보며 말라버린 내 몸의 물줄기를 더듬는다. 쓰라린 현실은 나를 더 오그라들게 하고 느닷없이 밀려드는 두려움은 나의 몸과 생각을 은둔하게 몰아세운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없이 가볍고 작아진 나를 발견한다.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가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이 이렇게 살아있듯 나도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어떤 수단으로든 살아남아야 한다. 헛꽃이라도 피워 내가 존재함을 알려야 한다.

오래전, 운장산에서도 헛꽃을 본 적이 있다. 산딸나무의 헛꽃이었다. 산딸나무 꽃은 연초록색이었다. 자연색 꽃이 화려하지 않아 꽃 위에 하얀 꽃을 또 피워 놓고 있었다. 나무의 몸속에 꽃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꽃을 밀어 올려 피운 꽃이었다. 그때 나무는 우주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연초록보다 눈길을 끄는 흰색으로 제 존재를 수정해줄 벌과 나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헛꽃의 의미를 길 위에서 다시금 되새겨본다.

어찌 자연 속의 꽃뿐이겠는가. 사람 역시 헛꽃을 피우고 산다. 누구나 감추고 사는 비밀이 있다. 내 존재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며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구태여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 역시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있다. 지금의 지남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속내를 감추고 산다. 세상으로 나오면 아무렇지 않은 듯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고 치장을 한다. 어찌면 그것이야말로 헛꽃처럼 살아가는 지혜요, 현명함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나는 멋지게 차려입고 분과 립스틱을 질게 발랐다. 그런데도 그 리움과 기다림은 허무로 건너간다. 희망과 기다림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기약도 없이 세월만 간다.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에는 두려움까지 인다. 이대로 이름값도 못 하고 시들고 말 것인가? 부질없는 생각으로 허무해지면 내 적막 위에 헛꽃 하나 피우고 절망을 내던진다. 존재의 힘은 행위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스콜라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 연약함 속에 생존하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를 맘껏 드러내고 싶어 한다.

헛꽃을 피우고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길을 걷는다. 산그늘이 조금만 쉬어가라고 발길을 붙들지만, 또 길을 가야 한다. 더는 주저하지 말고 매 순간을 생생히 살자고 걸음을 떼다. 아무런 힘도 없이 환골탈태 할 수 있을까마는 생이 피처럼 내 몸 속속들이 돌게 나를 찾아야 한다. 오그라든 신심을 열어 나를 드러내야 한다. 허물어져 가는 자존 위에 헛꽃 하나 피워 놓고 내 존재를 수정해줄 벌을 기다려야 한다.

지절대는 새들의 전언을 몇 줄 언어로 옮겨 구름 위에 실어본다.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문장밖에 없다고 중얼대며...

원목실 추천도서



기도의 자리로

C. S. 루이스 지음 | 윤종석 번역 | 두란노 | 2020년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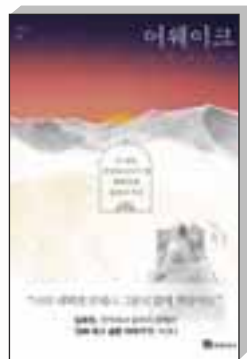
책소개

기독교 작가로 평평이 난 C.S.루이스의 신간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관심도가 높은 기도와 관련된 글을 모아 만든 책이다. C.S.루이스는 워낙에 깊은 통찰력과 필력으로 수많은 독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저자이자, 팀 켈러 이전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저자이기도 하다. 기도라는 행위에 대한 고찰과 의미 부여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절대 신과의 교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장기간 베스트셀러로서 기대가 되는 도서다. [출처: 알라딘]

저자소개 |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20세기 지성의 거장이자 명실공히 당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무신론에 심취했으나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로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오랜 시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냈으며, 1954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학과장으로 일했다.

30여 권의 폭넓은 저서를 통해 다양한 독자층과 만났으며, 지금도 수많은 새로운 독자들에 그의 작품이 들려지고 있다. 가장 널리 읽히는 대표작으로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가지 사랑》, 《여기치 못한 기쁨》, 《고통의 문제》, 《개인 기도》,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상 홍성사), 현재까지 1억 부 넘게 판매되고 세 편의 장편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전 〈나니아 나라 이야기〉 시리즈(시공주니어 역간) 등이 있다. [출처: 교보문고]



어웨이크(AWAKE)

김유진 지음 | 북폴리오 | 2022년 09월 20일

책소개

2030 청년들은 더더욱 고난에 취약하다.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부모를 비롯한 누군가에게 키워지던 때는 몰랐던, 폭우처럼 들이닥치는 각종 문제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다. 이 상황이 되면 그간 기대왔던 부모님도, 세상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룩하고 쌓아나가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온 힘 다해 뭔가를 해봤다 해도 어느 순간 반드시 공허해지고, 그 다음 스텝은 더더욱 막막하다. 인생 난이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겪는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이다. 그래서 친구 또는 동료들을 찾아 어울리며 떠들거나 게임, 음악 등의 다른 취미에 몰두하곤 한다. 어떻게 보면 술의 효과와 비슷하다. 한순간의 자극으로 잠시 잊을 뿐이다. 파티가 끝나면 난 여전히 혼자고, 내일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며, 이걸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김유진 변호사도 똑같이 겪은 것이다. 다만 그가 조금 달랐던 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사실이다. 당돌하고 뻔뻔해 보일 정도로 다 맡겨버렸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 단 한 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알려주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곤 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해서, 지나고 나서야 내 발자국 옆에 찍힌 하나님 발자국을 보게 된다. <어웨이크>는 그 뚜렷한 발자국을 증언하는 책이며, 우리 모두의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한 책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다 맡기라고, 그래도 된다고 독려하는 책이다. [출처: 알라딘]

저자소개 | 김유진

미국 변호사이자 대한민국에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킨 파워 인플루언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모리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가 있다.

[출처: 교보문고]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힘씁니다. 대장항문외과 이승현 교수

고신대병원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의 비전과 환자·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핵심가치를 위해 일하는 전략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입니다.

이승현 교수는 3대 센터장이었던 위장관외과 신연명 교수의 바통을 이어받아 2023년 3월부터 4대 센터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복음병원이 기독교병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2009년 3월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의료선교센터는 병원과 학교, 여러 개인과 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의료선교활동을 통합하고 재조직하여 선교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발전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2009년 설립 이전부터 고신의대, 간호대의 기독교학생 동아리인 '벤엘선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선교사를 발굴·양육·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고시니안 스쿨'을 전신으로 하여, 병원 내의 체계화된 조직이 의료선교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료선교센터는 복음병원과 소속된 교직원을 선교 자원화하고, 복음병원을 복음전파와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워간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선교사의 동원, 훈련 및 양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해외의료봉사 및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

원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료봉사·진료 지원 사역을 활성화하며, 국내외 응급재난구조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설립된 후, 제1대 센터장 장재호 교수, 제3대 센터장 신연명 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원목실장, 병원직원선교회 회장을 포함하는 실행위원 11명(목사와 강도사 3명, 의사 4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 직원 2명)이 매월 월례모임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훈련원 운영·의료선교 및 봉사활동 지원·의료선교 네트워크 구성

“의료선교센터의 주된 사역은 의료선교훈련원 운영, 의료선교 및 봉사활동 지원, 의료선교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의료선교훈련원’은 복음병원 교직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선교에 대한 단기 집중 훈련과정과 리더십 훈련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고, 기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훈련원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11~12주간, 단기 집중 훈련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목요일, 일과 후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찬양·말씀·주제 강의·조별 모임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가 의료선교훈련원 원장으로서 섬기며, 그 외에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찬양팀, 진행위원 및 조장과 부조장들, 20여 명의 중보기도팀이 훈련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2명의 지원자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의료선교훈련원은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과 연계하여 인준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훈련과정의 상당 부분에서 KPM선교사들이 강의하며, 12주 훈련을 마치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2022년까지 약 4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11~12주 훈련과정이 마치면 훈련 참가자들은 3~4개 조로 나뉘어 선교여행 및 의료봉사 활동에 참가합니다. 그동안 페루, 남아공,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활동을 쉬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된에 따라 7~8월에 남아공, 태국 등으로의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 및 봉사활동 지원’은 해외 및 국내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진료 봉사에 필요한 의약품 조달, 관리, 지원하는 일입니다. 의료선교센터를 넘어 각 선교단체,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국내외 의료봉사 사역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물품 및 장비,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파송된 의료선교사를 후원·지원하고 제3세계의 의료선교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참여하여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정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복음병원, 선교단체, 지역교회 등이 참여하는 선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단체 및 교회와 선교사역에 대해 협력하며, 의료선교 사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역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교저널을 비롯한 선교 간행물 발간, 웹 기반 자료실, 선교세미

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센터 센터장의 사명

지난 3월 의료선교센터 센터장을 맡은 이승현 교수의 의지는 남다른입니다.

“의료선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일들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복음병원과 센터 사역을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교수는 복음병원이 기독 병원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많은 교직원과 학생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동원될 수 있도록 병원, 선교단체, 지역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선교적 역량을 확대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의료선교훈련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선교사를 동원·훈련·양육하는 일과 각 의료선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선교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발견시켜 나가는 일들을 위해 장기적 의료선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감사함

이승현 교수는 그가 몸담은 대장항문외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장항문외과는 대장, 직장 및 항문질환을 수술하는 과입니다. 주로 대장암, 직장암 관련 수술이 수술 건수의 약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치핵(치질)·치루 등 양성 질환에 관련된 수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 습관이 변하면서 ‘서구병’이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대장계실염 등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술 후 환자가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퇴원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성동교회(담임목사 장덕상)에 출석하는 이승현 교수는 외과 의사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종양과 대장 일부를 절제하고 나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께매면 새로운 조직이 자라서 절단된 부위가 메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질서의 혜택을 받아서 외과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실제 환부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외과의사로 항상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이강대·한영석 박사팀, 대한갑상선 춘계학회 최우수 연제상 수상



고신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의 한영석박사(지도교수 이강대)의 연구가 2023년 3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갑상선수술 중 부갑상선 보존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근적외선 자가형광영상 기술로 탐지할 수 있는 깊이'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 연제상을 수상하였다. 한박사는 이강대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 장비로 어느 정도의 깊에 있는 부갑상선까지 탐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여, 조직표면으로부터 3mm까지 존재하는 부갑상선을 눈에 보이기 전에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렇게 탐색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강대·한영석 연구팀이 세계 최초이다. 이 연구로 부갑상선의 기능저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3.09.]

1주기에서 4주기까지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관리 최상급 병원 인정



고신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4년간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4주기 인증조사는 지난해 나흘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조직인력 관리 운영 등 4개 영역 512개 조사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고신대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의료서비스 수준, 환자 안전 관리 및 의료 질 향상, 진료체계 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2023.03.10.]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교육인증 병원' 현판식 개최



고신대병원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식을 3월 10일(금) 병원 내분비센터에서 개최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전문적인 당뇨병 교육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지정을 하고 있다. 고신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자가 혈당 측정, 인슐린 요법, 저혈당 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박 2일 일정의 당뇨병 캠프를 개최하여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 관리와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고신대병원 내분비내과 권수경 주임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뿐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과 접목한 혁신적인 예방솔루션으로 당뇨교육을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주)광남GSK, 고신대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에코델타시티에 준비중인 스마트병원의 마중물 되길 기대



(주)광남GSK(대표이사 황보석기)가 3월 15일 고신대병원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주)광남GSK는 금형, 플라스틱 사출, 압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주요 사업부문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각 사업 분야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전자·전자부품, 승강기 부품, 기계부품, 군납부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형제작에서부터 각종 산업부품의 양산까지 자체적인 단일 시스템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로 인한 원가절감과 품질관리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산경남 지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랑의 '골프 퍼트'를 제작하여 기부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황보석기 대표이사는 "발전기금의 마중물을 통해 고신대병원이 시작한 회귀질환, 암치료의 자존심이 에코델타시티에 4차산업과 스마트병원의 건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6.]

부산서구 주요 의료기관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의료지원 협약체결



고신대병원은 3월 20일(월) 부산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신대병원을 비롯해 서구지역 4개 의료기관(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육부산병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과 함께 'K 메디 허브' 꿈꾸는 서구 의료관광 특구에서도 2030 월드 엑스포를 대비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계획과 특구지정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협약을 주도한 공한수 구청장은 "박람회 개최 시 행사 참가 인원이 3천4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3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관광특구 도시 서구의 역량을 전 세계인에 보여줄 수 있도록 박람회를 꼭 유치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0.]

코로나팬데믹 이후 4년 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개최



제 56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차례씩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육성에 힘써온 바 있다. 고신대병원의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 등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신대병원 김영대 원목실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활동에 제약이 컸지만 다시 시작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더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7.]

Focus View

소아청소년과 정민영 교수, 식품알레르기 AI솔루션 의료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고신대병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의료 수요기업으로 선정됐다. AI 바우처 사업은 AI 제품·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고신대병원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AI 바우처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AI 솔루션 공급기업인 (주)인실리코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사업비 3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교수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제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식품알레르기 아동과 부모를 위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식단을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부산시 교육청 및 부산 아토피천식교육센터와 진행하였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혜미 교수팀과 더불어 정밀 영양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3.03.28.]

지방최초로 다빈치수술 교육 참관센터 선정

-김구상 교수 로봇유방암수술 노하우 배우러 전국에서 온다



고신대병원이 다빈치 시리트로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의 로봇수술 장비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사로부터 'RNSM (Robotic Assisted Nipple Sparing Mastectomy)' 로봇을 사용한 유두 보존 유방암절제술에 관한 참관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 서울삼성병원, 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지방에서는 최초이다. 로봇 수술 참관교육센터는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로봇수술분야 국내최고 수준의 실력자를 엄선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3/4분기에만 로봇으로 유방암절제술을 22회나 시행해 단일 기간 국내 최다 수술 기록을 올렸던 고신대병원 김구상 교수는 참관을 신청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수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2023.03.31.]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이사장 선출

-최종순 이사장 '100세 건강시대의 지킴이 역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고신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가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통합암학회 부회장, 대한가정의학회 부울경 지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최 교수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용법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노인병 치료와 암환자의 통합보완요법 활성화에 힘써왔다. 또한 고신대병원의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병원이 4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라면서 "학회를 잘 이끌어 우리나라 노인병학회의 발전 뿐 아니라 100세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04.05.]

Focus View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병용 치료' 효과 규명



고신대병원 심장과 허혈성 연구팀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과 김중선·이용준·이상협 교수 연구팀은 75세 이상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중단 사례도 낮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75세 이상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은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과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성 높은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4.05.]

고신대병원이 운영 중인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웰니스센터 외국에서도 뜨거운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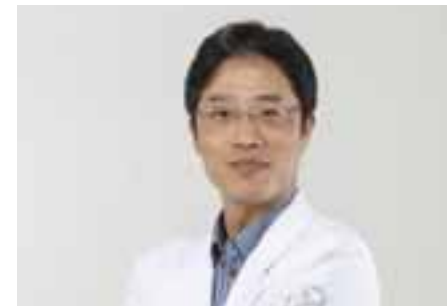
-독일 공영방송 ProSiben에서 취재 이어 이탈리아도 취재 예약



고신대병원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에서 운영 중인 웰니스센터의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유럽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ProSiben은 고신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 EDC 웰니스센터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병원의료진 간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취재했다. 방송은 AI산업과 빅데이터로 급변하게 될 미래의학을 조명하면서, 성공적으로 ICT기반의 비대면 원격의료를 운영중인 고신대병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취재분량은 11월경 독일 현지 유명다큐 Galileo X-Plorer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유럽의 취재진들은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4월 말경에도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방문하여 미래의학이 시연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2023.04.07.]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권재환 교수,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고신대병원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권재환 교수가 2023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KAFPRS)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지난 3월 25일~26일 양일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Interposition Technique for Septal Perforation Using a Composite Graft Made Up of Allograft Dermal Matrix and Autologous Cartilage (동종 진피이식물과 자가연골 복합체를 이용한 비중격 천공의 재건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심미안 우수논문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권재환 교수는 2007년 미국 스탠포드의대에서 임상연구원으로 안면 성형분과에 연구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9년부터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방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에서 다방면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2023.04.10.]

Focus View

지방 유일의 ICT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 보건산업진흥원 해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순환 구조의 모범사례 구축



고신대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어 몽골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ICT 기반의 비대면 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의료기관 중에서는 고신대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내 ICT 기술을 몽골지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고신대병원은 2017년부터 국립1병원, 2병원, 3병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한몽 의사연수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국립법무부 내무병원과 토파즈병원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해외거점센터 개소를 진행하였으며, 환자 나눔의료·중앙 세미나·팜투어 등을 해마다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몽골 MIAT항공사의 요청으로 환자 송출과 항공기에서의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고신대병원 및 부산지역에서 치료를 받았던 1,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상담·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4.]

대만 차이나메디컬 대학병원과 연구협력 MOU 체결



고신대병원은 한국시간으로 4월 21일(금) 타이완 타이베이에 위치한 China Medical University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과 서경원 진료부장, 위장관외과 김유홍 교수가 참석했으며 차이나메디컬 센터 측에서는 쟌룽빈 병원장과 팽신위안 부원장, 황치곤 BMI센터장, 민체신 BMI센터 디렉터, 추아이치 국제진료센터장이 참석했다. 차이나메디컬센터는 VIP 병실과 운동센터·수술센터 시설을 갖추고 있는 BMI센터를 운영하며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며, 황치곤 박사는 비만대사수술 집도 분야에서는 세계최고 권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신대병원은 대사비만 수술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있는 차이나메디컬 센터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대사수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24.]

환자경험평가와 함께 '전교직원 2부제 시행'으로 고질적이었던 주차문제 해소



고신대병원이 전 교직원 차량 2부제를 4월 17일(월)부터 전격시행하며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주차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타 병원에 비해 가장 많은 800여 대의 허가 면수를 포함해 1000여 면의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병원 앞 진입로에서 차들이 꼬리를 물어 병원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밀려 환자들의 검사예약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5부제를 시행하는 1000여 대의 교직원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해마다 협소했던 부분에 2부제 시행함으로써 매일 250여 대의 차량만 병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과 서구청, 서부경찰서 교통담당관 역시 병원 앞 교통 흐름이 원활히 개선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경승 병원장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빠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4.26.]

Focu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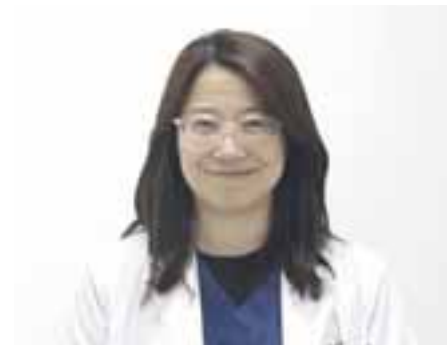
남태평양 바누아투 공화국과의 7년 인연으로 국회의장 일행 병원 방문



남태평양에 위치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에스몬 사이몬 전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달 24일 고신대병원을 찾았다. 에스몬 사이몬 전 국회의장은 바투아투 공화국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바 있는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16년 사절단으로 입국하여 고신대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 수술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듬해에는 재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고신대병원과 7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사이몬 국회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두경부갑상선외과 김구상 교수에게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수술 후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은 사이몬 의장은 연신 감사를 표했다. 사이몬 국회의장은 "늘 고신대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바누아투가 먼 나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고신대병원 의료진들이 바누아투를 방문하여 의료봉사와 함께 의료자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28.]

유방외과 좌선영 전공의, KSERS 베스트멘토멘티 비디오 어워드 최우수상 영예



고신대병원 유방외과 좌선영 전공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 2023 KSERS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에서 'Robot NAC sparing mastectomy' 주제 발표로 베스트멘토멘티 비디오 어워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베스트 멘토 멘티 비디오 어워즈는 대한내시경로봇외과 학회가 주관하는 젊은 외과의들이 본인이 실제로 진행한 수술에 대한 비디오 논문을 심사하는 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재개된 학회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넘는 많은 외과의들이 참여했다. 멘토멘티 비디오 세션에서 우리나라 전공의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학회 현장 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멘토를 맡은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는 "좌선영 전공의가 멘토의 지도하에 직접 로봇을 이용한 피부유두보존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공의의 교육에 열심히 임해 지역 외과학이 발전하는데 초석을 놓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23.05.04.]

방사선종양학과 박경란 교수, 세계유방암학술회에서 '우수 포스터 구연상' 수상



고신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경란 교수가 세계유방암학술회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23(GBCC)'에서 '우수 포스터 구연상(Good Poster Presentation)'을 수상했다. 박경란 교수는 임상목 교수와 함께한 '유방 전체 조사 시 유방의 해부학적 변화를 위한 적응 방사선 요법'에 대한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박경란 교수는 하버드 의대 연구강사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내 방사선 종양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유방암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유방암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료진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5.10.]

Focu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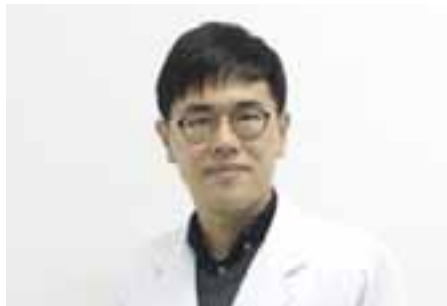
윤영순 수간호사 간호사의 날 맞아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받아



고신대병원 간호부 윤영순 수간호사가 5월 12일 간호사의 날을 맞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응급처치를 시행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영순 간호사는 심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은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한 윤영순 수간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5.]

가정의학과 강지훈 교수·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파킨슨병 발병률 연구결과 발표



고신대병원·삼성서울병원 공동 연구팀이 중년 이후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32만 8080명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가 파킨슨병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파킨슨병의 위험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운동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시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저자인 강지훈 고신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혈청 양성형과 음성형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파킨슨병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5.15.]

노모·언니 돌보던 50대 여성, 고신대병원에서 2명에게 신장 기증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식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김정애(53)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성격이 차분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김씨는 생전 남편과 함께 TV 방송을 보다가 장기기증에 대해 알게 됐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남편과 약속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식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에 동참해주신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정애님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3.05.15.]

Focus View

제5회 외과 연수강좌 성료



위암, 간담체, 대장암 등의 최신 수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신대병원 외과 교수진들과 개원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신대병원 외과는 2017년부터 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진료실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1부 외과연수강좌 ▲2부 영양집중 지원팀 소개와 소화성 궤양 천공치료법 ▲3부 유방암 최신 치료 경향 및 로봇 유방절제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경원 외과 주임교수는 “코로나로 지난 2~3년간 주춤했지만 올해는 외과연수강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신지견의 활발한 교류로 고신대복음병원이 부울경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개원의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암성통증 극복 캠페인 실시



고신대병원은 25일 장기려기념센터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주관했다. 암성통증이란 암 환자가 겪는 통증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로, 많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암의 진전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침윤, 폐색, 조직 괴사 등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된다? 강한 진통제를 미리 쓰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 등의 OX퀴즈를 통해 통증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고, 통증안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고신대병원은 말기암환자들의 앰블런스 소원재단과 함께 마지막 나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앰블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말기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3.05.25.]

오경승 병원장,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관계 부처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박용문 부산서부경찰서장에게 다음주자로 지목된 오경승 병원장은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하며 다음주자로 유연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장영수 부경대학교총장을 지목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구입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마약 근절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6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김윤아		●		●		●		●		●	간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배수현										●	심장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990-6102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암
	박태훈	●			●					●		갑상선, 내분비(당뇨)질환
	장민경						●					내분비질환(약처방)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금 오전진료는 신환, 낮병동, 호스피스 상담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아칼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지원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이식), 혈액이식(생체이식, 혈액이식)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정연순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호식	●	●			●	●		●	●		신장질환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병화										●	신장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당뇨발, 피부암, 하지재건, 두경부재건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윤수			●	●					●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흉터 성형, 안면 외상
	임호영							●				성형외과 일반진료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 및 스포츠 재활, 척추 및 관절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 목통증, 위상성 뇌손상, 삼킴 장애, 호흡재활, 초음파유도 중재시술, 신경근골격 초음파, 척추중재시술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
	권영호	●					●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소학			●				●				근골격계 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막각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임준현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집중,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배설연									●	●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김종진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기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김현석			●	●			●	●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항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			●		부인질환, 부인 종양, 부인 암, 부인암 유전상담,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6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 갑상선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송이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이지은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고주파열치료, 로봇경구갑상선 수술 ※ 경험자 클리닉 : 수 오후※
	최진혁	해외연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종양성형클리닉
	정성의		●	●	●			●		●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오영도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해외연수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체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	●			●		만성 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오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해외연수										로봇수술, 결석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흉부외과 990-6127	박성달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흉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부외상, 일반흉부
	이상호										●	흉부외과 일반진료
신경과 990-6106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전병준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이명, 어지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중이염, 난청, 인공와우이식, 산재
	권재환				●	●				●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첼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과·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해외연수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클리닉
	김영준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유태현								●			일반 비과 질환, 레이저 클리닉
	고재범									●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자폐증 출생아, 지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관련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반출만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혹아름),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장애)
	연구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래증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자체증, 소아위장관내시경
	전공의				●			●				소아청소년과 일반진료
신경외과 990-6124	조혁래	해외연수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위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	●	뇌혈관 질환,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간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피부과 990-6146	서기석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	●			●	●			피부과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권도익	●						●		●	●	피부과 일반진료, 피부 레이저
	전공의	●	●	●	●	●	●	●	●	●	●	피부과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고성현	●	●	●	●	●		●			●	일반내과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전민지		●			●						감염내과 일반진료
	진 솔						●	●				감염내과 일반진료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감염,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	●				●	●	●			치주과 일반진료
직업환경의학과의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빈부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사랑은 베풀수록 커진다는 **진리**

이 '믿음'과 '진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